Shakespeare의 <*Timon of Athens*>(1605-6)

1) 연도 상으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1600-5) 바로 직후에 쓰여진 작품으로서, 셰익스피어 당대의 공연기록이 없다.
1623년 헤밍(Hemminge)과 콘델(Condelle)이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들을 모아 전집(First Folio: 제1 이절판, F1)으로 만든 가운데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극은 미완성의 극이거나 혹은 신빙성없는 판본에 근거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중 가장 긴 것이 4024행의 <햄릿>이라면, 이 극은 2512행으로서 아주 짧은 작품이다.

2) 작품의 기본 소재가 된 것은 2세기경 그리이스의 작가 루시안(Lucian)이 쓴 Timon, or the Misanthrope 이 주 소재가 되었고(불어판 혹은 라틴어판), 여기에 플루타르크의 영웅전(Plutarch's Lives)에 나오는 에피소드로서 Life of Alcibiades 가 참고 되었다.

3) 주인공 타이먼의 이름이 가진 어원적 의미가 이 극의 전개와 이해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어원적으로 보면 그리이스의 time, timos는 개인의 명예, 가치를 의미하고, timoria 는 도움이라는 의미와 복수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4) 작품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는 셰익스피어가 가진, 그리고 당대에 만연하던 보편적 비관주의(general pessimism)로 일관한다.----> 돈과 인간의 본성과의 관계를 조명한 매우 현대적인 소재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 영국 르네상스시대의 비극의 사상적 흐름은 그 시대의 사회철학을 의식하여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그 흐름은 간략하면 낙관주의(Elizabethan optimism)----->비관주의(Jacobean pessimism)의 모습을 견지한다.
160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초기 르네상스극, 엘리자베스조의 극이라고 칭한다면, 그 이후는 후기 르네상스극 즉 제코비안극 혹은 스튜어드극이라고 말한다.
초기 극의 낙관주의적 경향: 헨리 7세가 기반을 놓고, 헨리 8세가 절대왕정으로서의 국가적

체제를 수립한 후, 후례의 문제와 종교적 갈등과 같은 많은 난관을 겪은 후 엘리자베스가 즉위했다. 그리고 그녀의 뛰어난 통치술로 인해 유럽의 패권 나아가 신세계로의 경략을 준비했던 시대의 철학은 무엇일까?

우주에는 확고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신념, 즉 중세적 질서개념(the great chain of being)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설파한 자연법(natural law), 그리고 모든 인간은 선하고 이성적이라는 인간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그것이다.

ex) 맥베스의 질서의 파괴와 그에 따른 혼돈

리어의 질서의 파괴와 그에 따른 역천현상

리챠드 2세의 볼링브루크가 보여주는 역동성

Hamlet의 2막 2장의 대사

What a piece of work is a man! How noble in
Reason! how infinite in faculties! in form and moving
how express and admirable! In action how like an Angel!
in apprehension how like a god! the beauty of the
world! the paragon of animals! and yet to me, what is
this quintessence of dust? Man delights not me; no,
nor Woman neither; though by your smiling you seeme
to say so

후기 르네상스 극의 비관주의의 출현

햄릿의 어두운 분위기, 리어의 어둡고 고뇌에 찬 현실

인간의 존엄성과 권위에 대한 환멸이 사회와 정치세계에 널리 퍼짐. 회의, 혼란, 실망에대한 비관론이 시대의 도덕뿐 아니라 극문학을 지배했다

Machiavelli---> 인간이란 선천적으로 악하다. 반드시 술수와 힘이 있어야 한다

Montaigne---> 인간과 동물사이의 듀사성을 강조하여 자연 질서와 윤리적 질서를 주장하던 종래의 견해에 반기를 들고 인간을 천사와 야수의 중간존재로 파악

Calvin---> 인간이성을 의문시하고 신의 의지와 은총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인간이성을 지상으로 추락시킴

이런 분위기의 산물로서의 Timon of Athens, 그리고 극을 지배하는 분위기

5) 이 극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잘 만들어진 극인가?
* 극의 구조에 관하여: 이 극은 극의 내용이 매우 특징이 없다. 셰익스피어의 기종의 작품들의 모자이크와 같다. 돈과 인간과의 관계는 <베니스의 상인>을 닮았고, 타이먼의 광기어린 분노는 <리어왕>을 닮았으며, 세상에 대한 혐오와 자기스스로의 추방이라는 에피소드는 <코리올레이너스>와 유사하다.

* 극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모든 극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극의 형식에 관한 한 가장 보편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틀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 극은, 극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이 있어야 된다는 그의 견해와는 달리 가장 비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 즉 주인공의 성격발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극의 중간부분이 부재한다. 이 말은 극이 마치 우화처럼 흑과백, 전과 후로만 구성되어있어 단순히 우리는 타이먼의 전혀 다른 두 얼굴, 두 모습만 갑작스럽게 접하게 된다. -----> 극이 매우 단선적으로 진행된다.

* 극이 단선적인 이유:
1. 우선 타이먼의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
2. 이아고나 에드먼드 같은 악이이 등자하지 않는다.
3. 서브플롯이나, 코믹캐릭터, 사랑이야기도 없다
4. 여성캐릭터가 없다.
그러므로 타이먼에게서 심리적 갈등이란 찾아 볼 수가 없다---> 영혼이 없는 극

* 타이먼의 행위에 대한 평가: 심리적 갈등이 없는 인물은 단지 도덕극 속의 전형화된 인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의 행위가 극단적으로 변화되었고, 그 변화의 과정도 없으면서 전혀 달라진 두 모습의 주인공, 그리고 여기서 야기되는 혼란속에서 그의 행위도 대립된 평가를 받는다.
그의 선행이 인간이 바라는 소망을 담은 정수
허위와 진실을 파악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

* 시대에 따른 그의 평가도 달라진다. 18세기 정신을 대변한다는 사무엘 존슨의 경우 그의 허세와 허영은 벌 받아 마땅한 죄로 간주하는 반면, 19세기 낭만주의자의 견해는 대체로 그

에게 우호적이어서, 그의 정신의 고결함을 인류를 위해 희생하는 예수같은 인물로 간주한다.

6) 이 극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 극의 이면에 숨은 셰익스피어의 의도는?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에 대한 단초: 이 극은 셰익스피어가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구조를 실험하는 것이다(앨리스 퍼머/ 호니그맨), 셰익스피어의 탈 전형적인 작품(프랭크 커모드) ---> 이들의 견해는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는 있으나 심증적인 견해 일 뿐 스스로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7) 새로운 이해의 시작:
극의 전개
---------->
1막(시인/화가) 3막 5막(시인/화가)
Philantropist Timon vs. Timon the Man-Hater
극의 구조가 너무나 단순하고,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인과 화가의 의미있는 등장: 그들은 단순히 숭고한 예술을 빌미로해서 타이먼의 돈을 빼먹는 인간상을 대변하는 것만은 아니다.
언어예술을 대변하는 시인과 구상예술을 대표하는 화가는 당대의 예술가의 대표성을 가지고, 당대의 예술이론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시인: (시는) 즉항에서 흘러나온 것이지요. 시란 나무의 진과 같아서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배어나옵니다.... 우리 시의 고상한 불꽃은 스스로 솟아나서 타오르지요>

<화가: 이것은 삶을 충실히 모방한 것입니다. 솜씨가 괘찮습니까?
시인: 자연의 스승이라고 말하리다. 예술적 기교가 살아있으며, 실물보다 훨씬 더 생생하군요.>

* 시의 창작은 일차적으로 영감(inspiration)의 문제이다. 시인은 태어나고 웅변가는 만들어진다(poeta nascitur, orator fit)는 르네상스적 사고가 말해주듯이, 시닌 신성과 아울러 자율성이 있다.
* 전형적으로 시의 여신 뮤즈에게 시를 갈구하는 형식, 시인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광풍과도 같은 기운(엔투시아스모스 enthousiasmos)

* 이런 영감은 문학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상상력과 연관된다. 시인만이 가지는 비상하는 정신의 자유는 그 안에 거룩한 힘을 가진다(시드니)---> 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자연을 능가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구가한다. 자연의 세계는 놋쇠이지만 시인들만이 황금의 세계를 낳은다(시드니). 그러므로 시인에게 있어서 상상은 창조와 그리고 허구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아페만투스가 시인을 보고 '거짓말쟁이 1.1'이라고 말한 것)

* 그러므로 시인은 일차적으로 자연을 모방하지만, 그 속에 속박되지 않고, 자신의 상상력이라는 인위적 기교를 통해서 그 자연을 변형하고 나아가 그 자체를 초월할 수 있다. <산중에 있는 절에 갔더니, 한 스님의 방에 이름있는 화가의 산수화가 걸려져있었다..... 그러나 주인과 벽을 잘못만나 그 그림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천연산수가 있는 산중이기 때문에 그 산수를 모방한 그림이 기를 펴지 못한 것이다. (법정의 글)>

7-1) 극의 전반: 어설픈 예술가 타이먼: 극의 시작이 다른 셰익스피어의 작품과는 다르다. 즉 네사람의 상인과 시인 화가가 등장하여 타이먼의 성격과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만 제시한다.(리어의 글로스터와 영토분할의 문제, 햄릿의 분위기, 맥베스의 분위기, 이아고의 오셀로에 대한 적개심과 비교)---> 타이먼과 주변인물들과의 최소한의 관계가 설정되지 못했다---> 갈등의 소지가 없다.

그들이 보는 타이먼: <결코 죄인이 될 수 없는 나약한 사람, 현명함 없이 어진 사람,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지. 그의 결점은 바로 정직이지>--->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고 오직 대상을 외양으로만 평가하는 사람. 즉 그는 자신의 존경이 돈으로부터 비롯됨을 인식하지 못한다.

* 타이먼의 대사가 짧고, 주변인들의 대사가 길다---> 관계의 주도권이 타인에게 있다.

그의 존재확인은 단지 돈이라는 재화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잔치와 선물이다. 자신의 돈을 통해 자신이 그리고자하는 그림을 완성하려는 어설픈 예술가로서, 돈은 곧 그의 상상력을 대신한다. 그러나 돈이라는 수단으로 추구하는 상상력이란 그 인간의 본성과 성격 그리고 관계에 따를 수 밖에 없고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기마련이다.

* 그리 잘못된 상상력의 이용: 벤티디어스가 채무로 인해 투옥되자 그를 구원하는데 사용되었고, 유산으로 인해 부자가 된 벤티디어스가 그 채무를 갚겠다고 했을 때 거부하는 상황-

---><예의를 지키는 것은 원래 성의없는 행위이며, 공허한 환영이요. .... 참된 우정은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요. 1.1>---> 인간사 최소한의 관례 형식마저도 무시한다. 우정이라는 추상적인 가치와 채무상환을 의미하는 예의라는 정당한 이성적 가치를 혼동하고 무시한다.
하인 루컬러스의 혼사문제----> 타인의 인생을 너무 가볍게 치부하고, 여기서도 자신의 돈으로 타인의 행복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신의 그림을 완성하려 했던 단순함.

* 화가의 그림을 보고 평가하는 타이먼은 그 속에서 자신의 맹점을 표출한다.
<화폭에 담은 것은 참으로 진실한 인간 그대로요. 산 사람은 정직하지않기 때문에 본성을 감추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지. 그러나 그림에 그려놓은 사람은 보이는 것 그대로니까 1.1>

*타인에게 점령당한 그의 상상력: 자신의 계획이 이미 탄로난 상황의 예술가
<그는 은덕을 퍼붓듯이 하지, 황금의 신 플루처스도 그의 집사에 불과해. 공로가 있으면 반드시 일곱배로 보상하고, 선물을 박으면 높은 이자를 붙인 것 그 이상으로 보담을 한단 말이야. 1.1>

* 이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인물 아페만투스; <친절의 가면을 쓴 악당들이 사랑이란 티끌만치도 없으면서 저렇게 온갖 예의를 다 갖추고 있으니 1.1>, <세상에! 저렇게 많은 놈들이 타이먼을 뜯어먹는데 진작 자신은 모르고 있으니! 1.2>

7-2) 극의 후반: 타이먼,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다:
* 극의 후반은 타이먼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로 시작된다. <냉혹한 심장 3.4><이 세상은 나의 과자점 4.3> <재산없이 존경받는 사람을 보았는가? 4.3>

* 타이먼이 철저한 독자적 연출을 시작: 전 에 비해 말이 많아졌다. 대사가 많다.
자신니 타인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입장에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은 자신이 묘사의 대상이었다면, 후반은 자신이 타인을 대상/소재로 삼아 주체적 그림을 그리기 시자한다.----> 관객과의 공유를 시도(독백과 방백을 통해서)

* 3막 6장의 스스로의 잔치준비. --->이는 전반부의 생각이 없이 과용하며 벌이던 잔치와 대조를 이룸. 그리고 스스로 그 잔치의 이름을 <최후의 만찬 Timon's last 3.6>이라고 명명하고, 자신의 연출의도를 관객과 공유 <다시 한번 돌아보자 4.1> <나는 숲으로 간다 4.1> 그리고 자신의 극의 주제를 <전 인류를 향한 타이먼의 증오 his hate may grow to the whole race of mankind 4.1>라고 설파한다.

* 돈은 곧 그에게 있어서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우연히 발견된 황금(이는 엔투시마스모스, 영감처럼 나타난 그의 상상력의 원천)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전반과는 다르다. <이만큼 황금이 있으면 만들 수 있지. 흑을 백으로, 추한 것을 아름답게, 부정을 바르게, 비천한 것을 귀하게, 늙음을 젊게 그리고 비겁을 용기로 4.3>
그리고 황금을 <인류의 매춘부 4.3>, <저주스런 흙덩어리 4.3>으로 규정한다.

* 그리고 그 스스로 상상력을 조정할 수 있는 단계 이르게 된다. 즉 황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시킴. 그리고 여기서 특히 <Timon> <I>을 사용하여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냄.

* 자신의 상상력(돈)을 통한 주변인을 계도함. 자신의 염세적 시각이 곧 악인을 교화하는 효과를 낳게된다. 이들 중 타이먼이 그리는 가장 큰 작품은 알키비아데스이고 또 그를 통해 그리고자 하는 아테네 사회이다.

* 타이먼과 알키비아데스의 공통점은 단지 인간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피상적인 것말고도 그들이 조국 아테네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난 단지 인간혐오자이고 인간을 미워하네 4.3>, <나도 조국을 사랑한다. 세상의 소문대로 조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니다. 5.1>
알키비아데스 역시 아테네를 멸망시키라고 돈을 주는 타이먼에게 <주는 돈은 받겠지만 충고는 다 받지 않겠소.4.3>---> 결국 이들이 바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공정한 심판이고 이것은 타이먼이 그리는 그림으로써 이를 위한 배우/대리자아가 곧 알키비아데스이다.
* 알키비아데스의 칼과 올리브를 가지고 아테네로 입성한다는 것은 공정한 심판과 평화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 결말에서 극으로서 조금 어색한 점은 타이먼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묘비까지 슨 상

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도 알키비아데스의 장면이 남아있다는 것. 즉 주인공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알키비아데스가 극을 종결짓는다는 것이 다소 좀 어색한 측면은 있다.

* 아페만투스: <당신의 인간성이란 양극단만을 알 뿐 중용을 모른다는 말이군 The middle of humanity thou never knowest, but the extremity of both ends 4.3>